

### 대상포진 주의보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내과 전문의 김동규 원장



## 60대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챙기세요

#### 50~60대 여성 최다 발생 면역력 하락 겨울철 주의 장기·안구 신경에도 영향

대상포진은 전 인구의 20%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2~10세 때 수두를 일으키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어릴 때 수두를 앓고 나면 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하게 되는데,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을 재개해 신경 주변으로 퍼지면서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붉은 물집들이 용기종기 군집을 이뤄 띠 모양으로 나타나며, 그 부위에 타는 듯한

통증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대상'(帶狀)이라는 질환명도 이런 띠 모양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김동규 원장에게 대상포진에 대한 궁금증을 들어봤다. <대상포진 환자 절반이 50~60대=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4년 64만 8280명, 2015년 66만6045명, 2016년 69만 1339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으로 연령별 환자는 50대가 25.4%(17만6289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60대 19.5%(13만5571명), 40대 16.2%(11만2526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60.9%로 남자 39.1%보다 훨씬 많았다.

대상포진은 특별한 계절적 요인은 없으나, 노인층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자주 나타나는 질병으로 꼽힌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률과 중증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연령대는 면역 정상자라고 해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피부·내부장기·안구 신경 등에도 발생=대상포진은 피부 이외에도 점막과 폐·간·뇌와 같은 내부 장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안구신경에 발병하면 포도막염과 각막염·결막염·망막염·시신경염·녹내장·안구 돌출·외안근 마비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聽)신경을 침범하면 이명·

안면마비·귀 통증 등이 전정기관에 나타나며 현기증과 각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포진은 통증이 심하다. 피부분절을 따라 발생하는 따가움·찌름·찌릿함·쑤심·타는 듯한 통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환자 가운데서도 30세 이하보다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통증이 심하고 발생빈도도 높다. 또한 발생부위가 호전된 뒤에도 통증이 지속할 수 있다. 포진 후 통증 역시 60세 이상의 환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항바이러스와 진통제 병행해대상포진도 전염될 수 있지만 대상포진은 전염성이 약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조선대치과병원 워크숍

#### 임상교수 20명 참석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야철 원쪽 세번째)은 최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2017년도 임상교수 동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손미경 진료부장이 진행한 이번 워크숍에는 임상교수 20명이 참석했으며, 2017년도 경영현황 보고와 각 부서별 운영계획에 및 병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수관 병원장은 "올해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워크숍이 제2의 도약과 함께 향후 50주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몽골 간호협회장과 몽골민족대 간호학과 교수진, 조선대 간호학과 교수들이 화순전남대병원 김광속 간호부장의 안내로 병원 곳곳을 견학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 몽골 의료진, 화순전남대병원 견학

몽골 보건부 관계자와 간호분야 교수진들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첨단 의료 시설과 선진간호 시스템 등을 견학했다. 남수령 몽골 간호협회장, 세대돌람 몽골민족대 의대학장, 오경체체 몽골민족대 간호학과교수 등 방문단 9명은 김광속 간호부장의 안내로 병원 곳곳의 첨단장비와 설비를 꼼꼼히 둘러봤다. 이번 견학에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들도 함께했다. 몽골 방문단은 특히 해외환자 치료현황과 진료시스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임환자 입원병동 등을 방문해 운영

체계와 병실의 시설·환경 등을 살펴봤다. 이들은 또 병문안 제한과 출입통제를 위한 스크린도어·출입증 시스템을 비롯한 보호자나 간병인이 머물지 않아도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남수령 몽골 간호협회장은 "한국 내 공공기관 고령만족도 최고등급 병원이라는 점에 흥미를 느껴 방문하게 됐다"면서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의료역량과 전문간호 시스템 등이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청연한방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청연한방병원(대표원장 이상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대학병원을 제외한 한방병원 중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의료기기 관련업체에서 개발 중인 의료기기나 기존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의뢰시 피험자를 모집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임상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지정된 기관만 가능하다. 청연한방병원은 식약처 기준 이상의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전문 인력, 의료진의 연구 수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의료기기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연한방병원은 독자적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위원장 설재욱 원장)를 구축하고 임상시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영 대표 원장은 "의료기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 한의 연구 의료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청연이 전국을 대표하는 연구 중심의 한방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학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호흡만으로도 독감 퍼질 수 있다

#### 美 대학, 공기 샘플 절반서 독감 바이러스 발견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 등이 아닌 호흡만으로도 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운영 과학뉴스 사이트인 유레크얼러트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립대학 보건대학원 도널드 밀턴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염 예방을 위해 감염자들은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게 좋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독감으로 진단받은 대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코와 목구멍 분비물을 면봉으로 채취한 샘플,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나온 분비물 등을 3일 동안 매일 수거했다. 또 밀폐 시설에서 호흡만 할 때 채취한 공기 샘플도 마찬가지로 수거해 배양했다. 분석 결과 상당수 환자가 주기적으로 독감 바이러스를 배출했다. 바이러스의 흔적인 RNA핵산만 검출된 것이 아니라 공기를 통해 감염시기에 충분할 수준의, 바이러스가 포함된 크고 작은 에어로졸 입자들이 발견됐다. 놀라운 것은 환자들이 기침이나 재채

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호흡만 한 공기 속 에어로졸 샘플의 48%에서 독감 바이러스 RNA가 발견됐다. 또 RNA가 발견된 샘플의 72%에 바이러스 자체가 들어 있었다. 연구팀은 이는 호흡만으로도 공기를 통해 독감 바이러스가 확산할 위험이 꽤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물체의 표면을 잘 닦고 소독하거나, 손을 잘 씻고 기침하는 사람을 피해도 바이러스에서 완벽하게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독감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직장에 나가거나 공공장소에 외출하지 않고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 자금 지원을 받아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미주리웨스턴대학, 산호세대학 과학자들도 공동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도널드 밀턴 교수가 독감 환자의 재채기나 호흡 공기를 채취하는 모습. <미국 메릴랜드주립대학 보건대학원=연합뉴스>

# 방수

##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부분설비(누수)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용,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반입시공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용페이지 제원키움프로그램입니다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제 패던디자인이 한 엔디나와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린답니다!!  
20년을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광주전남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